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으로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에 대한 실험연구

장지경*, 최종서**

요약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는 회계의 궁극적 목적을 유용한 정보의 제공으로 보고 이를 위한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으로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두어져 왔으나, 이들 관계는 개념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논의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질적 특성의 관계에 대해 설문에 의한 실험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실증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P대학의 학부과정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는 12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의 내용은 10가지의 가상적인 회계선택 상황을 제시하고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두 가지의 배타적 회계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계하였다. 수집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두 질적 특성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의 특성만을 만족하여서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갖는 의미와 함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실제로 상충되는 특성인지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Experiment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rimary Qualities of Useful Information of Relevance and Reliability

Ji-Kyung Jang*, Jong-Seo, Choi**

ABSTRACT

Financial Accounting Concept identifies the overall objective of accounting a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at is useful for decision making. It also describes relevance and reliability as the two primary decision-specific qualities necessary for useful information. There has traditionally been a presumption that there exists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relevance and reliability.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desire to confirm the empirical validity of the trade-off assumption. We launched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124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accounting in P university.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make the respondents to choose between two accounting alternatives characterized by relevance or reliability in 10 hypothetical transaction scenarios. The analysis of the responses suggested a direct, not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qualities, which was more evident for the group of students with a lesser exposure to accounting education or training. This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qualitie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genera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ce and reliability in particular.

Key Words : qualitative characteristics, relevance, reliability, trade-off relationship, questionnaire-based experimental research

* 동서대학교 경영학부(✉kjang@gdsu.dongseo.ac.kr)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 제1저자(First Author) : 장지경 · 교신저자(Correspondent Author) : 최종서

· 접수일(2012년 9월 28일), 수정일(1차 : 2012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2012년 10월 19일)

1. 서론

회계정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주체가 행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장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 함은 단순한 사실의 기술만이 아니라 숫자로 계량화되어 표현됨을 말하며 기본적이라 함은 의사결정에 충분조건은 아니어도 적어도 필요조건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성호, 1990). 이러한 회계정보의 궁극적 목적 역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특성을 말하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 질적 특성은 크게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도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목적적합성(relevance)이란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의 특성을 말한다. 또한 신뢰성(reliability)이란 그 정보에 중대한 오류나 편향(bias)이 없고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의 특성을 말한다. 만약 특정 거래를 회계처리 할 때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허용된다면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라는 질적 특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 특성들이 정확히 얼마만큼 포함되어야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어진 바 없다.

일반적으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관계(trade-off) 즉, 한 특성이 증가하면 다른 특성은 반드시

감소해야 하는 관계로 가정되어 왔다. 즉, 동시에 두 질적 특성의 충족을 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느 한쪽을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관계는 개념적으로만 논의된 것일 뿐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질적 특성은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특성이 달라지면 변화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질적 특성을 추구하더라도 유용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질적 특성의 하위구성요소 중 어느 특성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원가와 시가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 검증가능성과 표현충실성 사이에는 얼마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신뢰성의 하위요소간의 상충관계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질적 특성의 상충관계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하위구성요소 상호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이용자가 질적 특성의 하위요소 중 무엇을 중요시 하는가에 따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가 상충관계라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계정보이용자들이 상충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그 하부특성의 개념에 대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실험적 분석을 통해 회계학계에서 개념적으로만 논의되었던 두 질적 특성의 상충관계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공헌점이 있다.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개념과 이들의 상충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III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며, IV장에서는 설문을 통해 질적 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의 상충관계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V장에서는 결론 및 한계점을 기술한다.

II. 이론적 고찰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란 재무보고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틀을 말한다. 이는 직접적인 회계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재무보고의 기초개념을 제시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 제고를 이루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 SFAC No.2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을 제시하고 있다.¹⁾²⁾

구체적으로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목적적합성(relevance), 신뢰성(reli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의 네 가지 특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특정 거래를 회계처리 할 때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허용되는 경우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증대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은 위의 그림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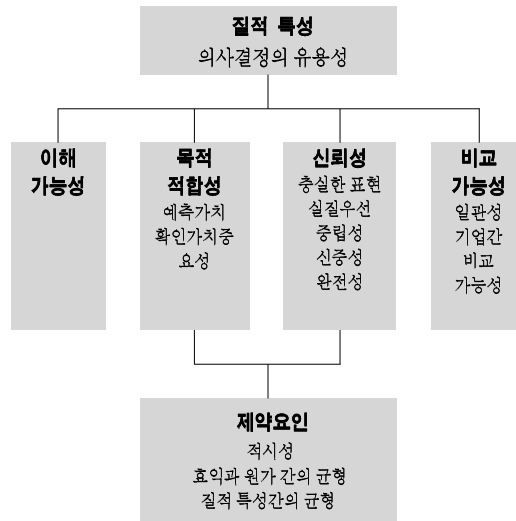


그림 1.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의 체계

Figure 1.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2.1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회계기준위원회는 목적적합성 있는 정보는 이용자가 기업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라 정의하고 있다(개념 31). 또한 목적적합성이란 의사결정 시점에 이용가능하도록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정보력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FASB, 1980,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2.

2) 2010년 11월의 공개초안에서는 질적 특성의 구조에 대한 수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제일 상위의 특성이 이해가능성이 아니라 유용성으로 바뀌었으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용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비교가능성, 적시성, 검증가능성, 이해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의 제약조건으로는 원가를 두고 있다. 기존의 신뢰성 표현대신 표현의 충실성을 주요 질적 특성으로 포함시킨 것은 신뢰성을 하부속성의 어느 것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신뢰성에 대한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실증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동일한 맥락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의 개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대표되어 오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두 질적 특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목적적합한 정보는 의사결정 시점에서 과거, 현재 및 미래 사건이 가져올 미래결과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여주고, 과거의 기대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예측가치(predictive)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피드백가치(feedback value)는 제공되는 정보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에 대한 이용자의 과거 기대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편, 회계기준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정보란 그 정보에 증대한 오류나 편향(bias)이 없고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개념 35). 이는 회계정보는 이용자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증거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록 목적적합한 정보라 하더라도 성격상 또는 표현상 신뢰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정보를 재무제표에 인식 할 경우 잠재적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과 실질우선, 중립성, 신중성, 완전성을 그 하부특성으로 하고 있다. 먼저 표현의 충실성(representational faithfulness)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과 측정치의 일치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자가 알고 싶어 하는 거래나 기타 사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우선(substance over form)은 거래나 기타 사건을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표시해야 함을 의미하며, 중립성(neutrality)은 정보가 사전에 의도된 결과를 유도하거나, 혹은 그 정보의 이용으로부터 나타날 경제적 효과가 특정 정보이용자에게 편향되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특성을 말한다. 신중성(prudence)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계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 과대 혹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정도

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며, 완전성(completeness)이란 고려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2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상관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황용호, 1987). 이러한 두 가지 질적 특성은 상충관계(trade-off) 또는 비례관계(direct)로 구분되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계학 분야에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되어져 왔다. 여기서 상충관계란 한 특성이 증가할 경우 다른 특성이 감소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자산평가의 회계처리를 들 수 있다. 만약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검증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뢰성은 제고되나 목적적합성은 저하될 수 있다. 반면, 자산을 현행원가, 실현가능가치, 혹은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은 실제 가치를 나타내어 역사적 원가로 평가한 것보다 목적적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신뢰성은 낮을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 자본화 회계처리에서도 두 질적 특성간의 상충관계는 성립된다. 연구개발비 자본화 회계처리는 대응원칙에 충실한 회계처리로서 기간손익의 적정성을 높여 주므로 목적적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나타날 미래 효익의 추정이 주관적이므로 신뢰성이 낮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특정 거래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함에 있어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에 상충관계가 발생할 때에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질적 특성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려될 질적 특성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확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Demski, 1974). 즉, 두 가

지 질적 특성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는 신뢰성을 위해 목적적합성을 어느 정도 희생시켜야 하며,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목적적합성을 위해 신뢰성을 어느 정도 희생시켜야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는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적 특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하면서도 이들 특성이 정확히 얼마만큼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어진 바 없었다. 즉,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특정 회계정보가 목적적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성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가정되어지는 바와 달리 두 질적 특성간의 관계가 비례관계, 즉 목적적합성이 증가하면 신뢰성도 증가하고 목적적합성이 감소하면 신뢰성도 감소하는 정(+)의 관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Melton, 1974; Stanga, 1980).³⁾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계의 사례는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목적적합한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의 성격이나 인식방법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정보의 제공은 오히려 이용자의 경제적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완전한 상충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또한, 정보이용자가 같은 질적 특성을 추구하더라도 그 하위구성요소 중 어느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용성 여부에 대한 인식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매도가능증권의 원가주의 평가문제를 생각해 볼 때, 검증가능성 측면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원가주의 평가가 신뢰성이 높지만 표현의 충실성을 중요시 하는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낮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요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는 각 특성의 하부특성 중 어느 특성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목적적합성 혹은 신뢰성의 하부특성 간에도 상황에 따라 역의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계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IASB와 FASB는 현재 Conceptual Framework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때 신뢰성이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충실한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고려한 바 있다. 이는 회계정보가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정보특성으로 표현의 충실성이 갖추어져야 함을 시사한다.⁴⁾ 만약 회계정보이용자 역시 회계정보를 신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표현충실성을 고려한다면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상관관계는 대등한 질적 특성으로서의 구조를 가지지 않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상충관계 혹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이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그 하부특성의 개념에 대해 재검토하여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충관계로 가정되어지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상충관계란 한 가지 특성이 증가할 때 다른 특성은 감소하는 관계

3)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2(1980)

4) IASB/FASB Conceptual Framework-Joint Project of the IASB and FASB, Project updates(2005)

를 의미하며, 회계처리에 관한 10가지 항목들을 제시하여 각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 바뀔 때 따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방향성을 측정하여 상충관계의 존재유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설문 대상은 P대학교 회계학과 학생 중 (1) 3개 고시반 학생 80명 (2) 중급회계 수강생 100명, 총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중 총 124부가 회수되었다. 분석은 먼저 124부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되며, 추가적으로 설문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도가 상이한지를 살펴보고자 자격증합격자여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모든 항목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행해질 수 있는 대체적인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의 쌍으로 제시하였으며, 0부터 100점까지의 점수를 답하도록 함으로써 각 문항마다 타당성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각 문항별 평가안을 표현할 때에는, 학생들이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학습에 의한 고정관념에 따라 그 관계를 일률적으로 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질적 특성의 하부구조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질문하였다. 즉, 목적적합성의 정도를 질문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예측 가치 정도를 점수화 하도록 하였고, 신뢰성의 정도를 질문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신중하며, 충실하게 표현되었는가를 점수화하도록 하였다.

표 1. 질적 특성간 상관관계의 평가항목

Table 1. Assessment Criteria for the correlation between Relevance and Reliability

| | 회계처리(1) → | 회계처리(2) |
|-----------|-----------|---------|
| 1. 투자유가증권 | 지분법 | 원가법 |
| 2. 장기건설공사 | 진행기준 | 완성기준 |
| 3. 유형자산 | 역사적 원가 | 현행원가 |
| 4. 영업성과측정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 | | |
|------------|------|------|
| 5. 회계보고주기 | 연차보고 | 중간보고 |
| 6. 증식가치 | 인식 | 비인식 |
| 7. 우발손실 | 공시 | 비공시 |
| 8. 발견가치인식 | 인식 | 비인식 |
| 9. 시장성유가증권 | 시가주의 | 원가주의 |
| 10. 예상정보공시 | 공시 | 비공시 |

본 연구는 위 설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분석을 하였다. 첫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두 가지 질적 특성이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 124명의 전체표본과 자격시험 합격여부에 따른 집단별 표본을 대상으로 χ^2 검증을 실시한다. 각 질문항목에 대한 A, B의 대체적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목적적합성의 변화와 신뢰성의 변화 방향을 비교하여 이들 양 질적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결과는 아래의 표2와 같은 분할표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표에서 각 셀의 실제빈도 수가 5이하일 경우 검증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결과의 강건성을 더하기 위하여 Fisher의 정확성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행한다.

둘째, χ^2 검증에서 밝혀진 두 질적 특성간의 상관관계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문항마다 Kendall의 tau-b 검증을 실시한다. Kendall의 상관계수란 변수들 간에 그 크기의 순서가 일치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의 개수에 따라 서로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를 통해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상관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 만약 회계처리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면 두 질적 특성은 상충관계(trade-off)에 있음을 나타내고,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면 두 질적 특성은 즉 비례관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χ^2 분할표

Tabel 2. χ^2 contingency table

| | | 신뢰성 | | |
|-------|------|------|------|------|
| | | 감 소 | 변화없음 | 증 가 |
| 목적적합성 | 감 소 | 실제빈도 | 실제빈도 | 실제빈도 |
| | 변화없음 | 실제빈도 | 실제빈도 | 실제빈도 |
| | 증 가 | 실제빈도 | 실제빈도 | 실제빈도 |

본 연구의 예로 생각해 보면, 투자유가증권의 회계 처리방법이 (1)지분법에서 (2)원가법으로 바뀔 때 목적적합성의 방향과 신뢰성의 변화 방향이 같으면 두 자료가 서로 일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Kendall의 상관계수는 이러한 일치/불일치의 개수로 구해지며, 이 때 일치하는 개수가 많으면 (0,1) 사이의 값을 갖고, 불일치하는 개수가 많으면 (-1,0) 사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Kendall의 상관계수가 양(+)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비례관계(direct)에 있음을 의미하고,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두 질적 특성이 상충관계(trade-off)에 있음을 의미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주요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P대학교 고시반 학생(표본수 = 70)과 중급회계 수강생(표본수 = 5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설문응답자 124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아래 표3의 분할표는 설문문의 각 항목에 대해 회계처리 방법이 바뀔 때 따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방

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면관계 상 설문지의 10가지 항목 중 1.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해당하는 결과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다.

분할표에 의하면, 투자유가증권의 회계처리방법을 (1)지분법에서 (2)원가법으로 변경한 경우 응답의 실제빈도가 우하향 대각선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해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정의 관계, 즉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라 목적적합성이 증가(감소)할 때 신뢰성 역시 같은 방향으로 증가(감소)하는 상관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위 결과와 달리 우상향 대각선 방향에 실제빈도가 집중할 경우에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역의 관계 즉,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라 목적적합성이 증가(감소)할 때 신뢰성은 반대로 감소(증가)하는 상충관계임을 의미하며, 실제빈도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분할표 상에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상호 독립적, 즉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표 3에서 우상향의 셀에 표본의 상당부분이 분포하는 반면, 좌하향의 셀에는 그 빈도수가 극히 작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표 3. 투자유가증권 평가방법의 χ^2 분할표

Table 3. χ^2 contingency table of investment securities

| | | 신뢰성 | | | 합 계 |
|-------|------|-----|------|-----|-----|
| | | 감 소 | 변화없음 | 증 가 | |
| 목적적합성 | 감 소 | 47 | 13 | 30 | 90 |
| | 변화없음 | 2 | 4 | 4 | 10 |
| | 증 가 | 2 | 1 | 21 | 24 |
| | 합 계 | 51 | 18 | 55 | 124 |

이는 목적적합성이 감소하는 경우에 신뢰성은 감소하거나 증가 또는 불변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나, 신뢰성이 감소하는 경우에 목적적합성이 증가한다고

답한 경우는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이 상충관계에 있는지 혹은 비례관계에 있는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회계정보의 목적인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설문에 제시한 나머지 2번~10번의 문항 역시 위의 사례와 같이 분할표로 분석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4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4는 설문문의 각 항목에 대한 χ^2 검증, Fisher의 정확성 검정, 그리고 Kendall의 tau-b 검증 결과를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먼저 χ^2 검증결과에 의하면 1.투자유가증권 평가 항목은 χ^2 값이 28.88로 매우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2.장기건설공사, 6.증식 가치인식, 8.발견가치인식, 9.시장성유가증권평가, 그리고 10.예상정보공시 항목에 있어서도 매우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χ^2 검증시 각 분할표의 실제빈도수가 5이하인 경우에는 정확한 검정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Fisher의 정확성 검정을 추가적으로 실행 하였으나, 분석결과는 χ^2 분할표 검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위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Kendall의 tau-b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두 질적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1) 역의 관계, 즉 회계처리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상충관계(trade-off)와 (2) 정의 관계, 즉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례관계(direct)로 기대되어진다. 이 때, $-1 \leq K \leq 1$ 의 값을 가지는 Kendall의 상관계수로 이러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관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만약 Kendall의 tau-b값이 양(+)이라면 목적적합성과 신뢰

성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례관계(direct)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그 값이 음(-)이라면 이들 두 특성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분할표 검증결과(N=124)
Table 4. The results of contingency table(N=124)

| | χ^2 값 | Fisher검정 | Kendall검정 |
|-----------|-----------------|---------------------------|------------------|
| 1.투자유가증권 | 28.88(<.01) *** | 4.09×10 ⁻⁶ *** | 0.3857(<.01) *** |
| 2.장기건설공사 | 21.17(<.01) *** | 8.87×10 ⁻⁵ *** | 0.3708(<.01) *** |
| 3.유형자산평가 | 12.45(0.01) ** | 0.0174 *** | 0.2360(<.01) *** |
| 4.영업성과추정 | 4.09(0.39) | 0.4889 | 0.1044(0.21) |
| 5.회계보고주기 | 7.84(0.09) * | 0.0949 * | 0.1925(0.02) ** |
| 6.증식가치인식 | 13.31(<.01) *** | 0.0094 *** | 0.2841(<.01) *** |
| 7.우발손실공시 | 2.65(0.61) | 0.5948 | 0.1199(0.15) |
| 8.발견가치인식 | 18.18(<.01) *** | 3.30×10 ⁻⁴ *** | 0.2719(<.01) *** |
| 9.시장성유가증권 | 17.30(<.01) *** | 0.0010 *** | 0.3206(<.01) *** |
| 10.예상정보공시 | 18.65(<.01) *** | 4.97×10 ⁻⁴ *** | 0.3252(<.01) *** |

주1) 괄호안의 값은 p-value를 나타냄.
주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4에 따르면, 1.투자유가증권, 2.장기건설공사를 포함하여 총 8가지 항목에서 Kendall의 상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χ^2 검증 및 Fisher의 정확성 검정과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즉, Kendall의 검증 역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비례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질적 특성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상충관계일 것이라 기대되어지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로, 회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들 두 질적 특성의 관계를 상충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가 상충관계라고 가정되어지는 이유는 신뢰성의 판단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지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되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상충관계로 예시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 관계는 성립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항목 중 몇 가지를 대상으로 이를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성유가증권 평가의 경우, 만약 매도가능증권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검증가능한 객관성 측면에서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같은 신뢰성의 하부특성인 표현의 충실성 면에서 살펴보면 유가증권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신뢰성이 낮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기건설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은 목적적합하기는 하지만 신뢰성은 낮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신뢰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의 실상을 얼마나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신뢰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실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이러한 실질을 회계수치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하는 방법이 진행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성이 높다고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신뢰성 뿐만 아니라 목적적합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가능하다. 요컨대, 목적적합성 혹은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각 질적 특성의 어느 하부특성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이들의 관계는 달리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적인 가정과는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회계학계에서는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일반적으로 이 두 질적 특성은 어느 한 특성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은 감소하는 이른바 상충관계로 가정되어져

왔으나 이는 주로 개념적 논의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며, 이들 특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제시된 일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의한 실험적 분석을 통해 회계정보이용자가 인식하고 있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가 일반적으로 가정되어지는 상충관계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고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의 관계가 상충관계가 아닌 비례관계로 강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신뢰성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모든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으나, 신뢰성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목적적합성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할표 검증결과는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학생들은 최소한의 신뢰성을 충분조건으로 하여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보다 높은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때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증대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집단별 분석에서는 회계자격시험 합격자 집단에 비해 비합격자 집단이 두 질적 특성의 관계를 비례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회계학 학습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두 질적 특성이 상충관계를 갖는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설문에 대한 일률적·경직적인 답변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의 상충관계를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이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어떠한 관계로 인식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설문내용의 작성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를 판단하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그 정보의 효용이 비용보

다 클 때 비로소 유용하다고 판단한다는 제약조건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둘째, 실제 회계정보 이용자가 아닌 학생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의 작성시 학생들이 학습된 바에 따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계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그 하부특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바꾸었는데, 이 과정에서 표준화되고 간결한 문장이 아닌 설문작성자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된 설문지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회계사, 증권분석가 등의 실제 회계정보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 질적 특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이성호, "기업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연구," *회계학연구* 제11호, 1990.
- [2] 황용호, "회계기준설정에 있어서 정보의 질적특성 활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3] Demski, J. S., "Choice among Financial Reporting Alternatives," *The Accounting Review*, Vol.49, 1974.
- [4] Melton, J. R., "Qualitative Objectives of Financial Accounting: A Comment on Relevance and Understand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74.
- [5] Stanga, K. 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evance and Reliability: Some Empirical Result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11, 1980.

저자소개



장지경(Ji-Kyung Jang)

2010년 부산대학교 회계학과 대학원
(경영학박사)

2011년~현재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재무회계, 세무회계



최종서(Jong-Seo Choi)

1990년 부산대학교 회계학과 대학원
(경영학박사)

1987년~현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관심분야: 재무회계